

인공지능,
권력변환과 세계정치

인공지능, 권력변환과 세계정치

김상배 외 지음

2018년 7월 25일 초판 1쇄 펴냄

펴낸곳 도서출판 삼인

지은이 김상배 외
펴낸이 신길순

등록 1996.9.16 제25100-2012-000046호
주소 03716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길 82(연희동 2층)

전화 (02) 322-1845
팩스 (02) 322-1846
전자우편 saminbooks@naver.com

디자인 디자인 지폴리
인쇄 수이북스
재책 은정제책

©2018,
ISBN 978-

값 16,000원

이 책은 2004년 9월에 시작해서 어언 14년 동안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기술사회연구회(기사연)>의 세 번째 글모음이다. <기사연> 공부의 첫 번째 성과는 2008년 4월 『인터넷 권력의 해부』(한울)라는 이름으로 엮어 나왔고, 2014년 2월에는 『소셜 미디어 시대를 읽다: 인터넷 권력의 해부 2.0』(한울)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6월을 맞아 인공지능을 화두로 한 세 번째 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대략 4-5년을 주기로 <기사연> 공부모임의 결과물을 묶어서 낸 이유는, 당시 기술사회의 변화와 이를 이해하는 지적 고민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던 시기에 그 권력적 함의를 탐구했으며, 이른바 웹2.0의 맥락에서 소셜 미디어의 관계변환적 성격을 천착했다면, 이번 작업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올 인간권력과 사

회구조의 변화가 주제이다.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사연>의 독회와 토론은 2016년 초에 시작되었는데,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문제제기를 한 이후 국내를 강타했던 4차 산업혁명 담론의 부상과 2016년 3월 인공지능 알파고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바둑 대결을 벌인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확산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이전부터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VR) 또는 증강현실(AR), 3D 프린팅,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기술발달이 창출하는 사회변화에 대한 논의들이 한창 진행되었지만, 2016년에 들어서 관심을 끈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오늘날 기술사회 담론에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기사연> 회원들의 인식이 작용했다.

사실 지난 2-3년에 걸쳐서, 이전에는 로봇이나 사이보그 정도로만 이해되던 인공지능이 갑자기 우리 삶에 다가온 느낌이다. 마치 여러 갈래로 각기 발달을 거듭해 온 기술들이 인간에 도전하는 객체(또는 주체)의 탈을 뒤집어쓰고 새로이 융합되면서 한층 더 확산되고 더욱더 발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나 할까?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 융합, 확산되면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산업과 비즈니스의 혁신이 예견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크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컴퓨터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컴퓨터가 인간 지능과 신체의 일부를 대신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특이점(singularity)의 도래가 우려되기도 한다. 제1부 ‘인공지능의 성찰적 이해’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듯이, 인공지능의 사회적 구성과 자본주의의 본질적 변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1950년 대부터 시작되어 큰 부침을 겪어온 논란거리였지만, 이에 대해 사회과학은 최근에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뒤늦게나마 인공지능이 주로 사회과학자들인 <기사연> 회원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 그 권력적 함의 때문이었다. 사실 오늘날 인공지능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지배할 것이나?”라고 하는 권력과 거버넌스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다. 제2부 ‘인공지능과 권력변환’에서 다룬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생산이나 인공지능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의 변화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지배와 거버넌스의 권력정치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들은 인간 행위자 중에 누군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책무성에 대한 이 책의 논의가 제기하듯이, 인공지능의 권력정치에서 그 누군가가 인간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수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사연>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한 또 다른 주제는 인공지능의 세계정치이다. 무엇보다도 국제경쟁이라는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촉진 또는 규제하는 정책과 제도가 관건인데, 최근에는 세계 주요국들이 미래 국가전략의 모색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부 ‘인공지능과 세계정치’에서는 무인무기체계와 미래전쟁의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시대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인공지능이 세계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이 책에서 포스트 휴머니즘과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고 있듯이, 미래 세계정치의 구성원리와 작동방식의 변화에까지 이른다. 아직까지는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인공지능의 세계정치에 대비하는 것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게도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발달은 조만간 또 다른 사회적 화두를 생성할

지도 모른다. 한때 세상을 회자되던 ‘인공지능’의 자리에 ‘4차 산업혁명’이 밀고 들어오더니,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도 옛말이 되어가는 듯하다. 최근에는 바이오·나노 기술 담론이 세(勢)를 얻으면서 소재과학, 유전자가위, 양자컴퓨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에 대한 관심도 부쩍 커지고 있다. 이러한 세태를 보면, 사회과학은 항상 뒤차를 타는 느낌으로 기술발달의 빠른 추세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사실 <기사연>의 공부모임도 황혼녘에나 나는 미네르바의 부영이처럼, 인터넷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셜 미디어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행보를 밟아왔다. 이 책의 작업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기사연>에서 새로이 시작한 ‘바이오 기술 패러다임’과 미래 기술문명에 대한 공부도 그러한 궤적을 따라갈 운명인지도 모르겠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2018년 1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임을 맞으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현석 교수님의 헌신적 참여에 감사드린다. 지난 30여 년간 국내 기술사회연구의 제1세대 주자로서 후배들을 위한 든든한 대부 역할을 맡아주신 조교수님께 드리는 기념논문집의 의미를 이 책에 부여해보고 싶다. 아울러 또 한 번의 지적 협업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필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직접 집필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지난 2년 동안 독회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기사연>의 다른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책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신흥권력의 부상과 중견국 미래전략’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2016년도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ocial Science Korea, SSK)’과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음도 밝혀야 할 것 같다. 이 책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기사연>의 조교를

맡아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대학원 박사과정 이종진, 유신우, 석사과정 조문규의 수고에도 고마움을 표한다. 또한 성심껏 이 책의 출판 작업을 맡아주신 삼인 출판사의 관계자 선생님들께도 감사한다.

2018년 6월 8일

김상배

[차례]

책머리에

1부 인공지능의 성찰적 이해

1장 인공지능, 권력변환, 세계정치—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색

김상배

2장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그 문제들—한국사회 인공지능

담론의 비판적 조망 김평호

3장 인공지능과 인지자본주의 비판 백육인

2부 인공지능과 권력변환

4장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책무성 최은창

5장 인공지능의 정보생산과 가짜뉴스의 프로파간다 송태은

6장 인간과 가상적 인간간의 관계—사회적 관계와 권력적 관

계 최항섭

3부 인공지능과 세계정치

7장 인공지능, 자율무기 체계와 미래 전쟁의 변환

조현석

8장 인공지능 시대 제조업 변환과 개도국 발전 배영자

9장 포스트 휴머니즘과 인공지능의 국제정치—계몽주의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민병원